

어린이 책꽂이

▲세상에 소문난 공부의 달인들= 공부를 잘하기로 소문난 역사 속 6명의 인물들이 자신만의 공부비법을 들려준다. 조선 최고의 사상이 이항, 실학의 대가 정약용, 노벨상 수상자 바버라 매클린 턱 등의 남다른 비법을 만날 수 있다. (스콜라·9천원)

▲색동지고리=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우리 것 시리즈'. 하늘, 햇살, 노을, 나무 등 자연을 담은 우리의 전통색과 꽃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성크하우스·1만1천원)

▲불을 가진 아이=초등학교 4학년 인 동백의 눈에 비친 있는 그대로의 가족과 학교, 사회를 들여다 본다. 이 세상의 어둠과 슬픔은 서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면 얼마든지 따뜻하고 눈부시게 바뀔 것이라는 진리를 일깨운다. (사계절·8천500원)

▲판타지 한자유희(제1권)=소녀들의 취향에 맞춘 한자학습 만화로, 사자성어와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래와 개별 한자, 한자게임을 통해 한자와 역사, 어휘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다. (중앙북스·8천500원)

▲자신만만 1학년=초등학교 입학에 앞두었거나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를 위해 기획된 시리즈.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서, 사회성, 지식 등을 주제별로 엮었다. (아이즐·9천500원)

고독한 경영자의 의사결정 90%는 '직관'

직관의 두얼굴 마이애스 지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대부분 경영자의 90% 이상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직관에 의존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직관은 무엇일까?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직관의 두 얼굴'에서 직관의 본질을 일상생활과 과학적 사례를 동원해 파헤쳤다. 책은 1부에서 '감'이나 '육감' 등으로 불리는 직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놀라운 직관의 힘에 대해서 말한다. 오래된 부부가 눈빛과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알아채고, 노련한 수사관은 범인이 짧은 순간에 보인 표정변화를 통해 거짓말을 판별해내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직관에 의해 의사결정을 할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것도 스포츠 감독의 직관은 출전할 선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경영자의 직관은 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성공과 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책은 1부에서 '감'이나 '육감' 등으로 불리는 직관의 의미를 설명하고 각종 연구 결과를 통해 놀라운 직관의 힘에 대해서 말한다. 오래된 부부가 눈빛과 목소리의 높낮이만으로 서로의 감정을 알아채고, 노련한 수사관은 범인이 짧은 순간에 보인 표정변화를 통해 거짓말을 판별해내는



저자는 주식투자, 스포츠, 도박 등 일상에서 겪거나 믿는 직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2부에서는 경험적인 학습과 생물학적 감각에 의존하는 직관에 대해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느낌'을 믿고 일반화해서 만든 고정관념과 직관학에 예측할 수 없어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각종 예시와 그림을 통해 직관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는 부정확한지를 체감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아무리 불안한 증세에도 흔들리는 투자자는 따로 있다' '타자들은 빠른 공을 어떻게 쳐낼수 있을까' '머리가 좋을수록 도박에서 돈을 많이 딸까' 등 우리가 일상에서 겪거나 믿는 직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근거로 한 직관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다. 책은 똑같은 현상이라도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안정한 직관일지라도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양한 기존 연구결과를 동원해 직관을 설명하면서 직관은 훈련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책은 또 우리의 현재 기분은 과거의 느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왜곡된 기억에 의해 자기분위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즉,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는 직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직관이 갖는 반대의 힘도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직관을 개발해 이익을 얻으려면 우리는 의식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며 "직관은 어떤 영역에서는 훌륭하게 잘 작동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질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공리·1만8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조선시대 민중들의 생활상 엿보기

개정판 임격정 흥명희 지음

올해는 벽초 흥명희의 탄생 120주년이자 서거 40주기다. 또 그의 대표작인 '임격정'이 조선일보에 연재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유훈 작가는 이유로 오랫동안 금기시 됐던 작가였던 흥명희의 '임격정'은 지난 1985년 9권짜리 전집으로 세상에 처음 나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임격정'(전10권) 4차 개정판은 지난 2004년부터 개정 작업을 시작한 후 4년간에 나온 것으로 신문 연재본, 조선일보사판, 음유문화사판과 대조 작업을 거쳤다. '임격정'은 백정 출신 도제 임격정의 활약을 통해 조선시대 민중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그린 대하 역사소설이다. 어려운 용어와 생소한 낱말의 뜻을 풀이해 실었으며 박재동 화백이 삽화를 그렸다. 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책부록도 함께 실었다. (사계절·각권 값·1만8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NG가 뽑은 세기의 여행서

<내셔널지오그래픽>

탐험의 시대 마크 켄킨스 지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뽑은 세기의 여행담을 담은 책이 나왔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의 수석 역사학자인 마크 켄킨스가 쓴 '탐험의 시대'는 1888년부터 1957년까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실린 수천 편의 여행기를 가운데 모험정신으로 무장한 탐험가만을 엄선했다. 1909년부터 이듬해까지 일년 동안 아프리카 수렵여행을 한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스벨트, 1927년 대서양을 단독비행한 찰스 린드버그의 여행기를 소개한다. 또 아프리카로 신혼여행을 떠나 사자 사냥에 나선 부부, 이슬람 신도로 변장한 뒤 이슬람 사원에 불려 들어가 본 남작 부인, 해적이 강탈해 간 진주를 되찾기 위해 추격전을 벌인 진주 채취업자의 모험담을 들려준다. (지오·1만6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임기

파묵의 '눈'

이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들을 책임이라도 읽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었다. 언젠가 오려낸 파묵과 함께 걷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떠오른다. 길에서, 전철에서, 카자흐스탄행 비행기속에서, 알마티 호텔에서, 그리운 어머니께 가는 길목 틈틈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그의 소설을 읽었다. 깊은 우울함에 파묵했다가도 '아, 이거다' 하는 통찰력 넘치는 글을 보며 감탄했다. 귀한 보석을 줬듯 보고 또 보며 즐겼다. 아주 깊은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세상이 내게 활짝 열린 모습으로 다가왔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불타올랐다. 내 인생이 변하고 있다. 그의 나라인 터키에 가고 싶었다. 터키란 나라를 진심으로 만드는 터키 민요 '우스쿠달라'도 며칠 내내 들으며 유패하면서 거대한 힘을 들이마셨다. 노벨문학상을 타기 전 그의 소설 '눈'을 읽으며 나는 파묵의 문체에 반했다. 참 아름답고 미술적인 책.. '내 이름은 빨강' 그리고 '눈'.. "우리 세계에서 가장 고귀하고 끝까지 수호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려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묵은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눈으로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



있다. 그것이 진실과 평등이든 역사와 전통이든, 사랑과 우정이든 인생의 아름다운 의미를 지켜가는 것일 때 아름다움은 "정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눈을 통해 세상이 다시 발견하는 것"이며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밀은 오직 사랑을 가지고 기울이는 관심과 다정함의 의해 드러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파묵은 부모의 이혼으로 깊은 상처를 받고 독서에 몰두하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처음에 시를 썼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혼한 부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딸 유아와 소설을 쓴다. 집필을 위해 수도승처럼 살며 매일 열 시간씩 작업을 한다. 그의 성실한 태도는 나 자신의 생활과 작업에 직접적인 자극과 영향을 주고 있다. 내면 깊숙이 영혼을 흔들고 빛에 떨게하는 파묵의 소설.. 진하게, 풍요롭게 인간의 내면에 신성함이 있다는 믿음이 가슴을 휘젓는다. 그 신성함을 찾아야 한다. 또 예술과 창작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도 던진다. 좋아하는 책으로 인생은 변한다. 현실의 고통을 뛰어넘고 자극 받고 싶어 달라고 한다. 힘을 때는 좋아하는 책으로 슬픔과 우울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제대로 숨을 쉴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책이 있기 때문이다. 내 삶을 조금씩 바꾸고 한 책들을 떠올리면 얼마나 인생이 부드럽고 가슴이 뿌듯한지.. 미래를 영원히 다 잊지 않아도 슬픔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순간의 의미를 매듭지어 가는 책들, 나의 존재감을 굳건히 만드는 책들이 있어 삶은 더욱 살만하고 그 무엇보다. (신현림·시인)



일가공인중개사
☎(대)234-8216
상가건물 매매
토지매매
전원주택
기타부동산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목적용 임대 급히 구함
시의 농장부지 급히 구함
상가 건물 급매
수익성 좋은 원룸
주요소 전문중개

국민공인중개사
☎(대)11-635-7939
건물
땅
주요소 전문중개
공장 급매
금대 시외방 180만P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감정가50%공시지가50%이하 물건 긴급매매
2007년도 광주지역 예상장 선호도!!